

지역 소식통

고창군로컬JOB센터, 창업 꿈나무 실무교육 개강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김희진)가 지난 10일 '고창군 청년 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최종 선발된 예비창업자 10명에 대해 창업 실무교육 및 멘토링을 시작했다.

이번 창업 교육은 17일(공휴일 제외)까지 5일간 진행되며, 기본교육 34시간과 실무교육 6시간을 포함한 총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창업자들은 창업 지원금 뿐만 아니라 창업 준비부터 정착까지 창업 업종 및 특성에 따른 단계별 맞춤 교육과 기술·경영·마케팅·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하여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창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마케팅 전략,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과정을 전문 강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2년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

부안군은 김종택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는 안전관리 강화 정책이다.

점검대상은 분야별로 건축물 38개소, 생활·여가시설 40개소, 환경·에너지시설 12개소, 교통시설 7개소, 소교량 등 기타 10개소이며, 특히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 30개소에 대해 집중 관리 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 통해 점검이 이루어지며 경미한 사항은 즉각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 확보 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재해취약지역 긴급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대비 만전" 당부

지난 8일부터 수도권 및 중부 지방에 집중된 기록적 폭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학수 시장이 11일부터 12일까지 예고된 집중 호우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긴급 점검에 나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수도권에 많은 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남하해 12일까지 충청과 전북지역에 최고 25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이 시장은 11일 집중 호우 취약 지역인 정읍전과 부전동 부전저수지 등을 긴급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시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예측 불가한 집중 호우의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며 "재해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미리미리 점검하고, 안전시



지역인 정읍전과 부전동 부전저수지 등을 긴급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시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예측 불가한 집중 호우의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며 "재해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미리미리 점검하고, 안전시

설 설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읍·면·동장들에게 지역 내 상습 침수 구역과 호우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하고 "저지대와 급경사지 그리고 피해 우려 지역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배수펌프장 및 지하차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한편 시는 호우 특보가 발효되는 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가동할 방침으로 민간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 시청 및 읍·면·동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에 돌입, 피해 상황 파악과 응급조치에 나선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관계 공무원들로 점검반을 구성해 저지대 등 재해취약지역 및 방제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축대 와 옹벽 등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여행, 일상이 되다'

정읍시,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홍보관 운영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7회를 맞는 이 박람회는 '여행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후원해 전국 지자체 및 관광 유관기관과 업체가 참가한다. 박람회에서 참가 단체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공유하고 각 지자체의 우수한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교류의 장을 갖는다.

특히 정읍시는 전북 서남권인 고창군, 부안군과 공동부스를 설치해 운영해 인접 시·군간의 연계 관광을 홍보한다.

정읍시는 대표 관광자원인 내장산국립공원의 '가을 단풍'과 구절초지방정원의 '정읍 구절초 꽃축제', 정읍전의

'정읍전 빛축제' 등 정읍 대표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객에게 정읍 생화차 리플렛을 제공해 정읍 생화차 거리도 홍보한다.

이와 더불어 전북 서남권 공동 관광 홍보부스에서는 정읍을 비롯한 고창과 부안의 대표 농·특산물을 전시한다. 부스 방문객을 상대로 퀴즈 게임을 진행하고 정읍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다운로드를 유도한다. 이에 참여한 방문객에게 정읍 대표 농·특산품(귀리 80g, 북방자주 미니어썬 50ml)를 제공해 방문객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북 서남권 3개 시군의 다인하고 특색있는 우수한 관광자원과 함께 대표 축제를 적극 홍보하여 잠재관광객을 유치하고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발맞춘 스마트관광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 획득의 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제7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부안군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7회를 맞는 이 박람회는 '여행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문체부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후원하며, 전국 지자체와 관광 유관기관, 업체가 참가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공유하고 각 지자체의 우수한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교류의 장이다.

부안군은 이날 전북 서남권인 정읍시, 고창군과 함께 공동부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접 시군과의 연계 관광을 홍보했다.

또한 10월에 열릴 부안 노을 아트 페스티벌과 곰소갯벌야화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북 서남권 공동 관광 홍보부스에서는 부안을 비롯한 정읍, 고창의 대표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부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기념품과 농·특산품을 증정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서남권 3개 시·군의 관광자원과 축제를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발맞춰 관광객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노인일자리사업 2개 수행기관 우수 선정

부안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에서 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1,500만원을 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한 전국 1,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수 유형과 단일 유형으로 나눠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추진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최종 18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된다.

부안군, 우수기관은 복수유형으로 부안종합사회복지관 1,000만원, 단일 유형 중 공익활동 분야에서 (사)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가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게 된다.

두 기관은 2021년 29개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운영해 2,20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사업추진실적·사업평가실적 및 비계량 정성평가의 심사를 거쳐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갯벌 방문 "연신 원더풀·어메이징"

문화재청·전세계 세계유산 전문가, '세계자연유산보존본부 유치 큰 힘 될 듯'

전 세계 18개국의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고창갯벌을 방문해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례를 보고 배웠다. 특히 5개 등재 지역 중 유일하게 고창갯벌이 포함돼 세계자연유산보존본부 유치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제문화재보존복구센터, 세계자연보전연맹이 공동으로 2022년 인간 중심의 자연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교육과정(PNC)을 고창갯벌에서 4일과 8일 진행했다.

18개국의 세계유산 담당자 21명과 8개국 세계유산 전문가 13명 등 총 34명이 참여했다. 4일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진행된 강연에선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의 보전 체계,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방안, 차별화된 유산관광 프로그램, 람사르고창갯벌센터의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트랙터와 전기차를 이용한 특별탐방, 갯벌식물원의 염생식물과 블루카본 현장 교육, 갯벌을 직접 걸으며 생태를 배우는 힐링갯벌교육 등을 체험하며 연신 "원더풀!" "어메이징"을 연발했다.

고창군은 한국 전체 갯벌의 중앙에 위치하는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 국



전 세계 18개국의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고창갯벌을 방문해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례를 보고 배웠다. 특히 5개 등재 지역 중 유일하게 고창갯벌이 포함돼 세계자연유산보존본부 유치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립기관의 유치를 통한 지역간의 균형 발전, 모든 종류의 갯벌을 한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갯벌 특성 등을 앞세워 보존본부 유치가 힘을 모으고 있다.

또 55만명의 염전은 태양광 개발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염전의 해수유통 및 염습지 복원이 포함된 세계 유일의 보전본부 건립 계획이 수립됐다. 염전 전체 부지를 생태적 공간과 염전 등 습지 완충구역으로 활용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 친

화적인 습지 속 갯벌 관리 공간을 만들어 갯벌 유산을 관리하고 미래세대에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려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전 세계 유산 전문가들이 고창갯벌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를 기원해주고 응원해줘서 힘이 난다"며 "앞으로 있을 공모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하게 평가에 임하여 반드시 보전본부를 유치해 기대해 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